

우크라이나에 성서를 후원해 주세요!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과 위안을 주는 성서를 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어 성서를 보급합니다.

우크라이나성경 후원

KEB하나은행
630-008603-501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후원문의 : 080-374-3061



영상보기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2년 여름 제68권 2호



성경이 선교사가 되는 땅,
터키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믿음의 씨앗, 성경

권서 백흥준이 지게 끈으로 꼬아
몰래 들어온 쪽복음을 읽으며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한국

2022 여름 제68권 2호

02 포토에세이

하나님의 자녀 된 가치

04 2022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성서를 제작, 기증했습니다!"

06 커버스토리

성경이 선교사가 되는 땅,
터키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10 2022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2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2 성경을 받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15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6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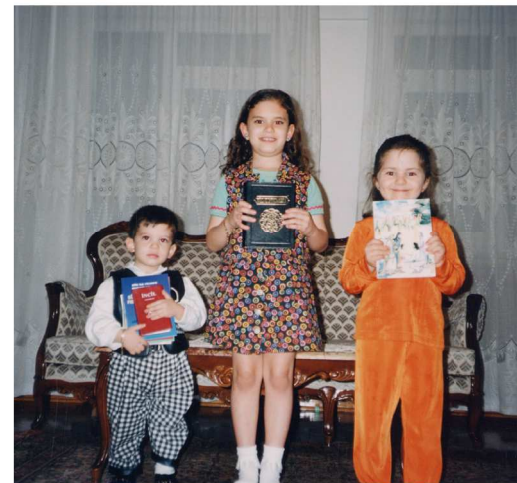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으로
청년들과 함께 말씀 행진!

18 후원 이야기

21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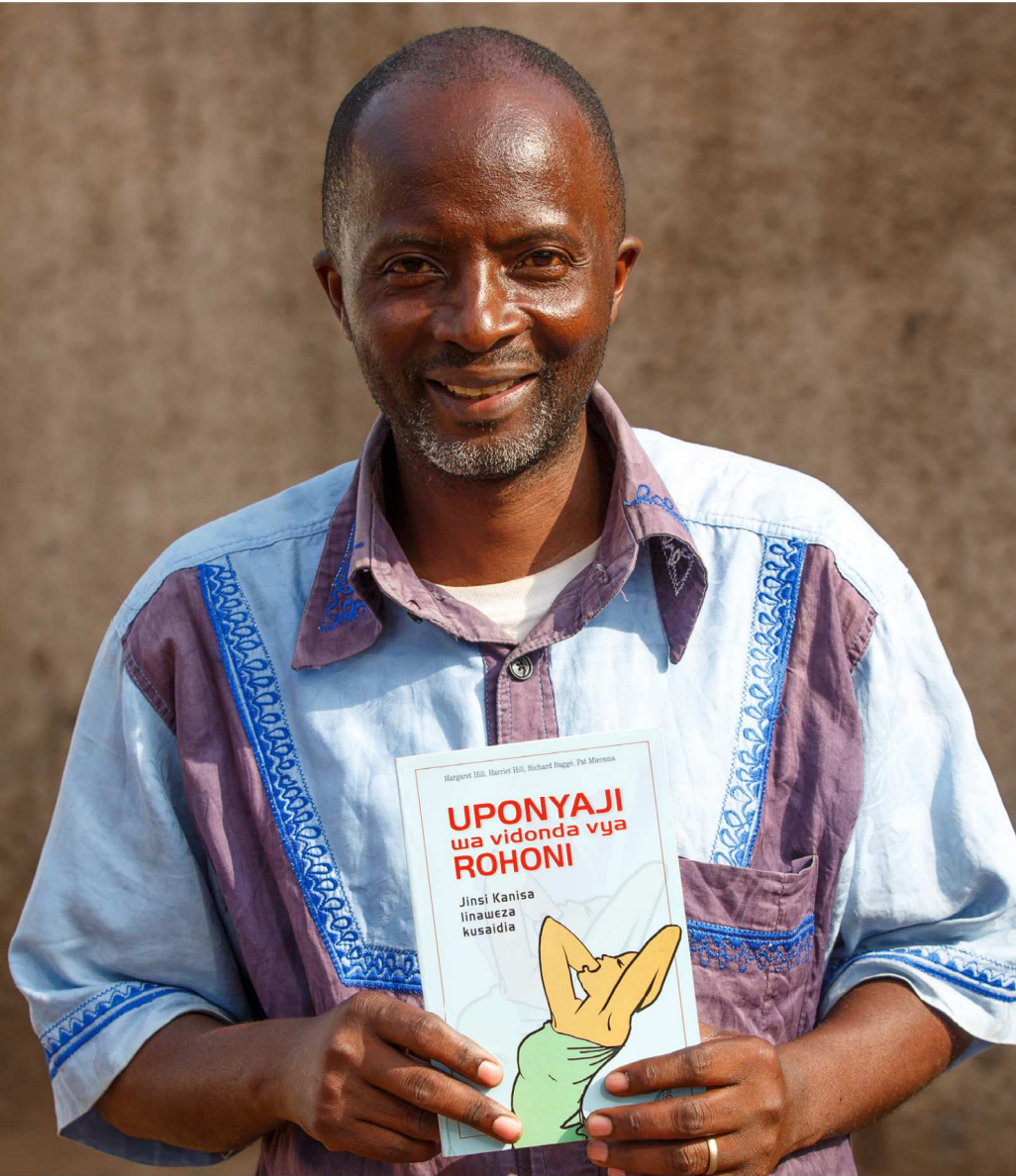
- 2021 세계 성서 번역 현황
-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제137회 정기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법제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성서사업센터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재단사무국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2년 6월 30일
- 인쇄인 인쇄처 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하나님의 자녀 된 가치

1994년, 꿈직했던 르완다 대학살 속에서
아벨 가족은 목숨을 걸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벨의 아내와 아이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벨은 간신히 난민촌에 도착했지만,
삶이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열악한 환경과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여 년 동안 여러 난민촌을 전전했습니다.
마침내 우간다 나키발레 난민촌에 도착했을 때,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받은 아벨은
성경을 읽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을 통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벨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난민들도 성경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성서를 제작, 기증했습니다! ”

권익현 사장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외 성서사업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존 로스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이 최초의 한글 성서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를 번역 출간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공회에서는 (사)한국독교역사연구소와 함께, 2022년 4월 26일(화) 새문안교회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공회는 초기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이 한국 교회 발전과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을 되새기며 존 로스의 위대한 정신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53,855

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115,409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 외 국내 성경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 성경 254,300부가 출판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다매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표현으로 번역하여 목회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간한 『취리히성경 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도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64개 나라에 62개 언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155부가 증가한 1,582,215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니다. 이러한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매 성서공회들이 성서 보급을 재개하면서 해외 성경 제작 요청이 지난 해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미화 25만 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개 회원 성서공회에는 358,592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176,800부의 우크라이나어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성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교회·기관·개인들께서 5억여 원의 헌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우크라이나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을 포함하여 국내외 성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총 35억 8천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8천여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 세계로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은 금년 4월 말 기준, 전체적으로 약 85%가량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말에는 『새한글성경』 신구약 완역을 출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이사회 때 보고드린 대로, 14개 교단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원칙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현재 “개정 원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개정 원칙”을 본 이사회에 보고하여 확정하고, 교단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37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2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국내성서 보급

153,855부의
성서 보급



해외성서 보급

64개 나라에 62개 언어로
1,582,215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



해외성서 기증

30개 성서공회에
358,592부의 성경 기증



후원 헌금

약 10억 8천여만 원이
증가한 35억 8천여만 원

성경이 선교사가 되는 땅, 터키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 해질녘의 이스탄불 모스크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땅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에도 꼭 들어갈 만큼 나라 곳곳에 복음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정확히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터키의 기독교 인구는 1% 미만, 99% 이상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상당수는 무신론자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터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자체를 낯설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든 무신론자이든 기독교 복음에는 문외한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기독교는 핍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소수

의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드러내기 어렵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많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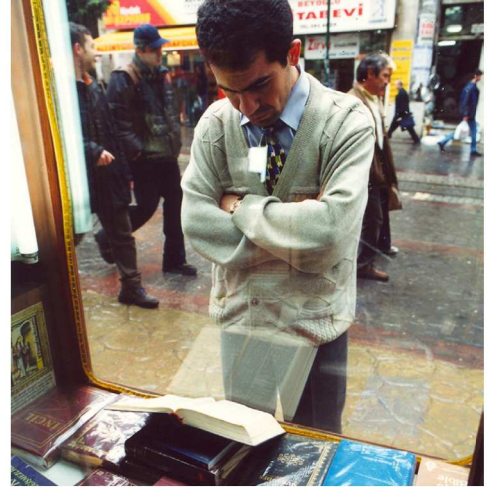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들과 친구들은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나아가 직장을 잃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터키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뉘어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양측 모두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표적 삼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타마르 카라수(터키성서공회 총무)

또한 터키의 젊은 세대들은 무신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터키는 주위 중동 국가들에 비해 개방적인 국가 정책으로 인해, 세속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터키의 많은 젊은 세대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종교 자체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칭합니다. 종교를 비이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거부하는 이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터키성서공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경 보급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터키성서공회가 설립될 당시 터키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였지만 지금은 1%를 향해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때에 터키성서공회가 남아 존재하며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터키의 복음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성서공회는 일반인들이 성경과 진리를 접할 기회를 상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점을 통해 종종 기독교에 대한 학문적 궁금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에게 성경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주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 성서공회 서점에 전시된 성경을 읽고 있는 행인

“이 거리를 20년 동안 지나다녔지만, 성서공회 서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성경 앞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저를 여기로 이끈 것만 같습니다.”

-성서공회 서점에 방문한 터키 행인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서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방문객은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쪽 복음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으며, 한 젊은이는 구세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대학생 무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종말, 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점을 방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작은 서점에 불과한 이곳에서는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성서공회 관계자



▲ 이스탄불에서 열린 도서 전시회에서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또 이스탄불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관련 질의를 주고받으며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교를 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차별과 핍박 가운데 놓인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소수의 교회들은 규모가 매우 작고,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모국어인 터키어, 아르메니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간의 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해 신앙을 이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씨앗이 되고, 믿음을 지

키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터키성서공회는 지역 교회를 통해 자국을 떠나 터키로 온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터키 안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영화를 상영하기도 합니다. 난민 캠프에 있는 대부분의 난민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마르 카라수(터키성서공회 총무)



▲ 지역 교회 난민 사역 모습(좌), 난민 캠프 전경(우)

“저희는 키리칼레 마을의 난민 캠프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가족은 터키에 머무르기 위해서 무슬림으로 개종해야만 했습니다. 고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잃어버렸고, 절망과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전해 받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지역 교회 관계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거부하는 터키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기 좋은 땅’과는 멀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터키 땅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그 어떤 발보다 말씀이 크게 열매 맺는 ‘기름진 땅’입니다.

이슬람교와 세속화로 물든 터키는 어쩌면 강경한 이슬람 지역보다 더욱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심어진 능력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 복음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터키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2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2.4.30 기준)

아메리카
15개
성서교회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아이티,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29개
성서교회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셸,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 태평양
9개
성서교회



남태평양, 라오스,
몽골,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 중동
9개
성서교회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우크라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모잠비크 시찬가나어, 이마쿠아어 성경이 봉헌되다!

▲ 이마쿠아어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모잠비크성서공회의 발렌테 체코 총무는 지난 2021년 말 진행되었던 시찬가나(Xichangana)어 성경과 이마쿠아(Emakhuwa)어 성경 봉헌식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역은 일 년 동안 지속된 이동 제한 조치가 끝난 후 완성되었고, 저희는 잠시나마 코로나19에 대해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발렌테 체코(모잠비크성서교회 총무)

2021년은 모잠비크가 가장 어려움을 겪은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1월에 모잠비크를 강타한 태풍 엘로이즈는 큰 피해와 수천 명의 난민을 양산했습니다. 모잠비크성서교회도 큰 피해를 입어, 약 12만 8천불에 해당하는 성서가 유실되었습니다.

세계성서교회연합회를 통해 모금된 연대기금으로 팬데믹 속에서 어렵게 사역을 이어오던 모잠비크성서교회는 태풍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유실된 성경들 사이에서 일부라도 수거하려 노력 중인 발렌테 체코 총무

태풍이 지나간 후, 많은 자매성서공회의 도움으로 발렌테 총무와 성서교회 사역자들은 소실되었던 성경 재고의 일부나마 보충할 수 있었고, 피해 지역 교회에 성경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잠비크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해의 대부분이 봉쇄되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그 어떤 모임도 금지되었고, 이동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모잠비크성서교회는 진행하던 대부분의 사역을 온라인으로 대체 했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자, 모잠비

크성서교회는 즉시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모잠비크 전역을 돌며 목회자 훈련과 교회 지원, 성경 보급에 힘썼고, 두 개의 첫 번역 성경을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사람들

2021년 12월, 모잠비크성서교회는 남풀라(Nampula) 지역에서 이마쿠아어 성경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이마쿠아어는 남풀라 지역의 약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간의 성경 번역 과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편 이웃한 카보 델가도(Cabo Delgado)지역에서는 이슬람 신자들의 테러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수 천 명이 목숨을 잃고 8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인 남풀라를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마쿠아어 성경은 지역 사회에 치유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교회는 이곳 남풀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안정을 찾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을 것입니다.”

-발렌테 체코(모잠비크성서교회 총무)



▲ 시찬가나어 성경 봉헌식에 모인 사람들

줄리아 윌리암스 목사는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가정과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그녀는 이마쿠아어 성경이 그들을 돕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말합니다.

“저희는 함께 모여 부족 언어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성경을 읽은 후, 그것을 이마쿠아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있으니, 저는 부족 언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줄리아 윌리암스(남푸아 지역 목사)

이마쿠아어 성경의 봉헌 2주 전에는 자이아이(Xai-Xai) 지역에서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축하의 시간을 가졌던 시찬가나어 성경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시찬가나어는 약 32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 시찬가나(Xichangana)어 성경과 이마쿠아(Emakhuwa)어 성경은 2021년 본 공회에서 제작하여 모잠비크에 보급되었습니다.

“저희 언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 초네(자이자이 지역 목사)

미차크는 시찬가나어 성경 봉헌식을 보기 위해 120km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성경은 저희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뜻 깊은 장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이 생겼으니까요.”

—미차크 우벳세(자이자이 지역 주민)

모잠비크의 새로운 성경들이 지역 사회와 교회들에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도전 가운데서 사역하는 모잠비크성서공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Prayer |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스리랑카 거리의 평화 시위 모습

최악의 경제난 속에 스리랑카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장시간 일어나는 정전으로 일상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숙제하거나 교복을 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며, 생계의 어려움을 버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 지지자들의 공격으로 폭력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

고, 스리랑카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갑니다. 폭력 사태 속에서 사망자도 여럿 나왔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는 가장 힘들고 슬픈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의 공격과 기름, 식량, 의약품 같은 생필품의 부족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리랑카성서공회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국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리랑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스리랑카가 좋은 통치를 받아 경제가 안정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으로 청년들과 함께 말씀 행진~!

최재선(영락교회 청년부 목사)

청년들과 함께할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친한 지인 목사님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기나긴 기간 동안 젊은 청년 세대들은 모이지 못하고, 봉사나 선교도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하고 교제하는 힘들고 메마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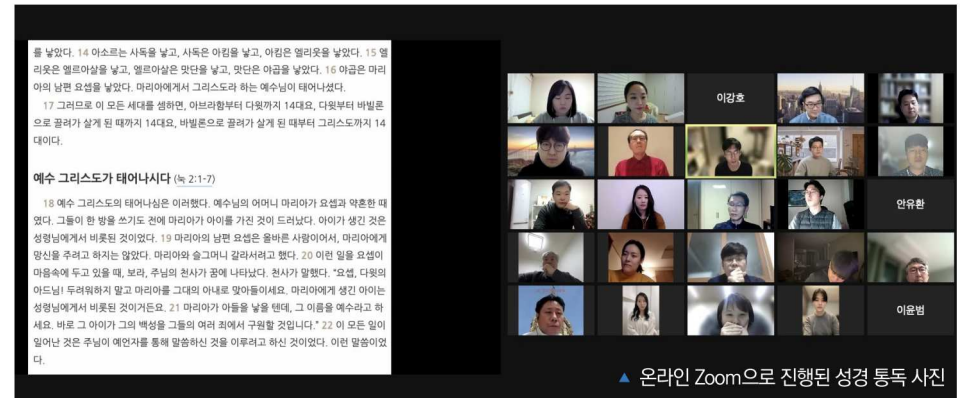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시기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들의 영혼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채워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며 설레는 영적 사건이 될 것인지 생각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며 청년부 임원들과 이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공동체의 성경통독에 대한 도전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읽는 일에 거부감을 갖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

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실제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을 공동체와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간을 거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기 바로 전까지인 2022년 2월 7일(월)에서 24일(목)까지 총 18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온라인 Zoom으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으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독하자는 데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영락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번역된 것과 같이, 젊은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적시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은 배가되었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온라인으로 통독하자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니 모두의 마음이 기대감으로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행진하여 나아가



▲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된 성경 통독 사진

고자 하는 영적인 비전과 뜻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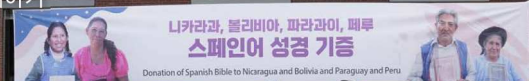
먼저, 통독할 4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장수를 살펴보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28장으로 총 117장이었습니다. 따라서 18일 동안 통독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6~7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청년 임원들은 총 117장을 통독하기 위해 각 장을 읽을 117명의 청년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멘토단)을 섭외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한 장씩 실시간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의 장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영락 청년들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늦은 저녁 시간, 직장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참여할까 걱정 반 기대 반의 시간을 초조하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생각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통독하

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 시작된 통독은 최소 1시간에서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저녁 11시까지 매일매일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과 함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통독하면서 느낀 점은 마치 살아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생동감과 물입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 왔던 청년들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새로운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되어 퍼져 나갈 때 받은 공동체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

Support | 후원 이야기



▲〈스페인어 성경〉을 두고 기도하는 기증 예식 참석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서울광염교회 - 〈스페인어 성경〉 25,911부, 〈아이티어 성경 외〉 6,680부, 〈불어 성경〉 3,424부, 〈라오어 성경〉 1,920부, 〈키룬디어 성경 외〉 6,445부 기증

2021년 10월 19일과 2022년 3월 8일,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남미 지역 6개국과 부룬디, 콩고, 라오스에 총 44,380부의 성경을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성경 반포 사역은 켜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에 반포되는 성경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폭력과 신앙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이 중요합니다. 후원하는 〈스페인어 성경〉을 통해 중남미에 평화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와 부룬디는 내전의 상처와 교육의 부재로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원되는 〈불어 성경〉을 통해 난민촌과 병원, 낙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태풍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는 공식적인 교회 건물 밖에서의 선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티어 성경〉과 〈라오어 성경〉은 가난과 재난 속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위로와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빛교회 성도들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성경으로 세워지기를

빛교회 - 〈불어 성경〉 4,643부 기증

2022년 5월 3일, 대한성서공회 성서사업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빛교회(양태우 목사)의 후원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불어 성경〉 4,643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식에서 양태우 목사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이 들어감으로 인해, 이 말씀을 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처럼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 리더 은란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이 간절할 때에 여러분이 귀한 성경을 보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빛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정치적 불안정으로 오랜 기간 내전이 지속되고 있어, 사람들은 내전의 위험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는 지역 교회 및 공동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 계층에게 성경을 보급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하는 〈불어 성경〉 4,643부는 내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 2차로 발송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제작 모습

우크라이나에 성서를 보내다!

한국 교회, 후원회원 -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353,600부 기증

2021년 4월 14일과 29일 그리고 5월 13일,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성서>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현철호 목사(청산교회)는 “교인들과 함께 ‘복음의 빛’의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크라이나 땅을 위로하시려는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효녀 회장(여전도회전국연합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평화가 깃들기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바람을 전했습니다.

김창주 총무(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선량한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이 성경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영호 목사(생명의빛교회)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내보니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보내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며 성경 보내기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이상화 목사(서현교회)는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3차례에 걸쳐 성경을 발송합니다. 4월 25일, 1차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 6천 8백부가 선적되었고, 5월 29일 2차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 6천 8백부가 보내졌습니다. 3차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2만 8천 부는 6월 중 발송됩니다. 이후에도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

매 순간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66일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성서공회 사역자들은 안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적 군사행동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로켓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Kharkiv) 주민들은 거의 매일 쉬지 않고 포격을 경험하고 있어, 계속 방공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들과 더불어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키이우와 이웃 도시, 마을, 특히 군사 행동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리비우에서는 기존 성경 재고가 거의 소진되어 새로 인쇄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부활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진 사람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가정들은 슬픔으로 가득 찬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온 민족은 이 부활절의 본질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또 악에 맞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보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전국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 명에게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힘과 평화를 주십니다. 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모든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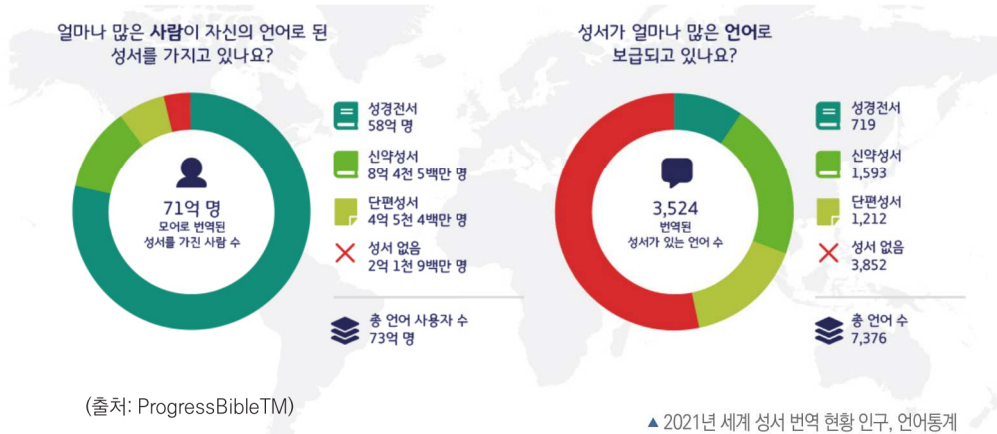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성서공회 대변인 로스티크(Rostik) 드림

*이 편지는 2022년 4월 30일 우크라이나성서공회로부터 받은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1. 2021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전 세계 3,524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21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7억 9천4백만 명(전 세계 인구의 10%가량)이 사용하는 90개 언어로 성서 번역을 완료하였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 총무는 “새로운 번역본들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성서를 제공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삶을 헌신한 번역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전 세계 후원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 번역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과 위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기준, 총 7,376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는 71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다. 신약성서는 1,593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212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아직 3,852개의 언어는 단편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에 있다.

2021년 한 해, 성경전서와 신약성서, 단편성서를 포함하여 48개의 언어로 첫 번역 성서가 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3개 언어는 성경전서로, 8개 언어는 신약성서로, 37개의 언어는 단편성서로 번역되었다.

미얀마 쿠알심(Khualsim)어는 미얀마의 소

수 언어로 약 7천 명 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이 성경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번역되었다. 미얀마 쿠알심어 성경 봉헌식은 코로나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쿠데타의 어려움으로 18개월 지연되어, 11월에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봉헌식 현장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있었다. 안타깝게도 번역자로 참여한 버나드 로이제 박사와 번역을 도왔던 그의 아들 모두 새롭게 출간된 성경이 집으로 배송되기 바로 며칠 전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쿠알심 성경 봉헌식의 설교자는 “버나드 박



▲ 쿠알심 성경 봉헌식의 모습

사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본 공회는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 1842~1915년)의 최초의 우리말 단편 성서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를 발간한 지 140년을 맞이하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함께, 2022년 4월 26일(화) 새문안교회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학술 심포지엄은, 본 공회 호재민 총무의 사회,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었고, 개회사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윤경로 이사장이, 환영사는 본 공회 권희현 사장이,

축사는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이 하였다.

기조발표로 옥성득 교수(UCLA)가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고, 유경민 교수(전주대학교)가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문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적 특징 연구”를, 박형신 교수(남서울대학교)가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를, 이두희 부총무(대한성서공회)가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년)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3. 제137회 정기이사회 개최



▲ 신 임원 소개(왼쪽부터 회계 이선균 목사, 부이사장 김순권 목사, 이사장 양병희 목사, 직전 이사장 이정익 목사, 서기 김경원 목사)

대한성서공회 제137회 정기이사회가 2022년 5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현철호 목사(청산교회)가 “말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이현식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이건희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박영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가, 감사로는 정명철 목사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

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신 임원을 인선하여 이사장 양병희 목사, 부이사장 김순권 목사, 서기 김경원 목사, 회계 이선균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김현배 목사, 김동권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 이용호 목사, 이정익 목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구세군대한본영 교단대표 이충호 이사 후임으로 김병윤 이사를 선임하였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